

• 동아리톡톡 •

# 민족 혼의 소리로 세상을 위로하다

## 대금 동아리 '은빛나래'

'은빛으로 하늘을 날다'라는 뜻을 가진 '은빛나래'는 대금의 소리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로 사라져가고 있는 국악의 멋을 확산시키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가 결성된 2013년 당시에는 회원이 2명이었으나, 현재는 식구가 8명으로 불었다. 총무 김은자(60세·당리동) 씨는 2010년에 당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대금을 배웠는데 연주 실력이 늘자 배운 것을 되돌려 주고 싶었다. 이에 이봉근(64·당리동) 씨와 같이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처음 공연한 곳은 당리동 청림요양병원, 하단동 중앙효병원, 괴정동 한마음병원이었다. 2013년부터 매월 1회 국악과 흘러간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국악기의 소리를 좋아하고 흥에 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지난 11월 24일에는 당리동 셋별공원에서 국악과 트로트 공연을 했다.



'강원도아리랑', '진포배기' 등 7곡을 연주했다. 그날 주민들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야외에서 울려 퍼지는 대금 선율이 취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있었다. 주민 노숙자(63·당리동) 씨는 "평소에 국악을 좋아하는데 대금 소리가 가까이서 들으니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매주 1회 창립회원인 이봉근 씨 사업장에서 연습한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반기

에는 중단했다가 10월 말부터 매주 괴정2동에 위치한 학습시민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은빛나래 동아리는 지난해와 올해 사하구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으로 공연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보편대 등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받으며 기교를 부리면서 맛깔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기술도 연마하고 있다.

총무 김은자 씨는 "일반적으로 대

금은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박자에 소질이 없는 초보자라도 선배 회원이 따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금은 구멍에 청을 감아서 불어야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 청은 갈대 속의 아주 얇은 막이다. 회장 하성수(67세·괴정동) 씨는 소리만 듣고도 청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안다. 그는 직접 갈대를 채취해서 회원들의 청을 교체해 주고 있다. 하 회장은 "회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석하지 않고 연습에 참여해 대금도 잘 분다"며 회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금은 '만파직직'이라 하여 소리로써 세상의 환란과 풍파를 평정해 한다는 설화가 있다. 은빛나래 동아리는 민족 혼의 소리를 간직한 대금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면서 봉사하고 있다.

김필분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 코로나 틈새 사하아카데미 성황리에 열려

### 서경덕 교수 '한국의 역사와 문화홍보, 왜 중요한가'



제97회 사하아카데미가 지난 11월 20일 저녁 7시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 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강연이 번번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다가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성신여대 교수이며 독도학교 교장인 서경덕 교수가 우리 역사와 문화 홍보의 중요성과 창의적인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흥미로운 강연을 펼쳤다. 오랜만에 열린 사하아카데미에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으로 저녁시간에 열려 가족이나 젊은이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한 이정미 씨는 "한국 문화를 홍보해야 하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라며 자주 사하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윤시영 씨는 "서경덕 교수의 책도 읽고 SNS도 자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한국홍보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따뜻한 마음을 후원할 수 있는 곳

###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꽃노을로 알려진 대포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해수욕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면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만나게 된다. 복지관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제법 많은 복지사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는 반가운 목소리에는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미소도 담겨 있었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다양한 주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맞춤형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가족, 지역을 돕고 있다.

물운대종합복지관은 사례관리사업, 지역조직원사업, 서비스제공사업을 한다. 그 중 서비스제공사업의 교육문화사업은 참여율이 높다. 아동들을 위한 피아노, 미술교실, 컬러클레이와 동화교실은 주 5회, 3회, 2회로 다양한 수업시간이 있고, 성인반은 피아노, 요가, 생활요리특강, 다문화 한글교실, 리본과 도탈공예의 수업이 있다. 특히 한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반은 3개월에 걸친 수업이다. 어르신 수업으로 이팔청춘 한글교실과 내원장수대학이 있다.

이곳 복지관의 수업은 사하구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한글교실과 물운대희망정보화교실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밴드를 활성화해서 수업을 하거나 태블릿 PC를 제공하여 재택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강의내용이 담긴 USB를 TV와 연결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수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박준호 과장은 주위를 둘러 보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을 살 맛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바람도 조심스레 내비추었다.

문의 :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 사하배움마당 VOL.28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입니다.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0. 12. 20.

## 사하구민 배움의 열정은 더 커진 한 해였죠

### 사하구 평생교육사 4인의 다사다난했던 '2020년' "새로운 패러다임 속 필요한 프로그램 발 빠르게 만들 것"



사하구 평생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평생교육사 4명 (왼쪽부터) 최영은, 김은지, 최미소, 최영조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달았죠"

2020년을 마감하는 사하구 평생교육사들의 소회는 남다르다.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속 취소되면서 어느 누구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을 그들이다.

사하구에는 사하구민들의 평생교육 사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주역들이 있다. 김은지, 최미소, 최영조, 최영은 4명의 평생교육사가 그들이다. 최영은 평생교육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며 "이를 계기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고, 구민들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 교육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새로운 속세를 많이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과도 있었다. 사하구가 2020년 교육부 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학습시민센터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실감스튜디오를 만들어 신속하게 비대면수업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학습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구민 누구나 스튜디오를 이용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사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7년 되는 해이다. 김은지 평생교육사는 "지금까지는 구민들을 평생학습에 참여시키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구

민 스스로가 활동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먼저 문을 두드린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조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기 힘들다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동네방네학습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0~30대의 젊은 층이나 남성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 최미소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학습공동체를 꾸려보기를 추천했다.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나

아갈 때 큰 발걸음을 할 수 있다며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은 평생학습사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기획해서 구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는 사하구 평생교육사들의 모습에서 좀 더 풍족해지고 있는 사하구민들의 삶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 다름의 동행 '장애인 학습놀이터'

###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의 재능기부로 진행

다름의 동행 '장애인 학습놀이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시설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위축된 장애인 학습자들의 정서적 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동아리의 재능기부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9개의 장애인 기관, 11개의 평생학습동아리(푸드패밀리, 레터라온 등), 11개 프로그램(푸드테라피, 가죽공예 등)으로 총 33회가 운영된다.

지난 10일 「마리아마을」에서는 문화패타루의 전통음악 수업이 진행되었다. 난타강좌로 소고, 장구 등 전통악기를 활용한 난타힐링 프로그램이다. 이날 쿵쿵! 하는 난타박의 소리가 넓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장애인들은 북을 두드리며 몸풀기를 하고 난타의 기본박자를 배웠다. 소고로 장단에 맞춰 걸어보는 수업으로 이어졌다. 무릎을 까딱까딱, 엉덩이를 쉴룩쉴룩, 어깨를 들썩들썩 춤으

로 표현하는 소고놀이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문화패타루 율영주 회장은 이런 시설에서 오랜만의 봉사도 더 의미가 있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수업 전 걱정했지만 열정적으로 함께 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소고는 사물놀이 연주도 하고 춤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가벼워서 장애인들이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야외활동과 프로그램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이 이번 다름의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넌 배울 때 빛나!"- 학습을 통해 구민이 빛나다

## 제5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올해는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심스러웠다. 그런 걱정과 설렘 속에서 제5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제2청사 1층 마당, 5층의 평생학습관과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공유마당, 홍보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으로 이루어졌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1층 마당에 분부 부스를 설치하여 행사 안내를 했고 서면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행복교육지구,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의 부스도 차려졌다. 역사와 야생화 포토존, 핑크색 벽으로 감성을 채운 '넌 배울 때 빛나' 포토존에는 주민들이 몰려 즉제분위기를 냈다.

3층 중회의실에서는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려 사하구 평생학습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변함없는 인기몰이를 하는 5층 체험관에는 비즈 마스크 목걸이, 판화로 제작하는 에코백, 우드버닝 핸드폰거치대 등 다양한 동아리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발길을 잡았다. 전시마당은 평생학습 수강생과 동아리, 장애인복지관의 멋진 작품으로 큰 강의를 채웠다.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5층 대강당에서는 하모니카 연주 영상을 비롯한 인형극, 아오자이무용단의 부채춤, 벨리댄스 등 멋진 공연이 사하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1년간 학습한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자리이다. 또한 주민에게 학습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



하며 변화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보여준다. 이날 잔치에서는 코로나 위축된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학습의 열성을 잃지 않았으며, 온라인과 SNS중심으로 회합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미소 평생교육사는 "새로이 제2청사로 이전한 평생학습관이 어떤 공간이고 구민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넌 배울 때 빛나'라는 말처럼 우리 구민들의 삶이 학습을 통해 빛나고 윤택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 배움을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 봉사단

### 사하구 자원봉사자 대회에도 참가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는 여러 분야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히 이야기 주머니, 문화패타루, 하하수어 동아리는 재능나눔 봉사단으로도 활동이 대단하다.

12월 12일 예정이던 2020년 사하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되었다.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유공자 표창,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도 계획했지만 개개인에게 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야기주머니 봉사단, 아오자이 무용단, 나눔댄스 봉사단, 청춘마술 봉사단, 문화패타루, 하하수어 봉사단 등 6팀은 행사 중 하나인 '네모폴세모폴 콘서트' 공연을 사전 녹화했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영상은 사하구 공식 유튜브 채널과 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하수어 봉사단은 1년 전 평생학습관에서 수어를 배우고 동아리를 결성하여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대회에 그 소감이 남달랐다. 회원들은 청각이 밝아도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수어를 통해 소외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였다.

비록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빛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숨은 자원봉사단이 있어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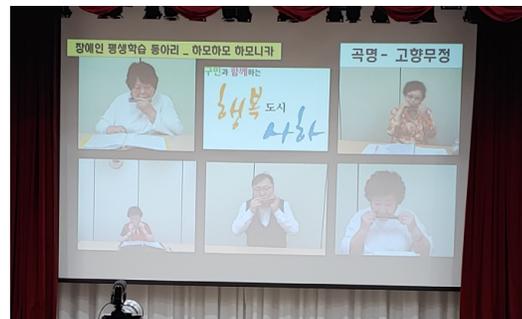
김미영 평생학습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비즈마스크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



'브라보 마이라이프 송!' 프로그램 참여자의 작품



장애인평생학습동아리 '하모니카 하모니카'의 온라인공연

## • 아름다운 그대 •

# 마음의 울림을 글씨로 쓰다

## 캘리그래퍼 유명미 씨

유명미(51세·하단동)씨는 캘리그래퍼다. 2016년 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래피를 접하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지금은 여러 곳에서 불러주는 강사가 되었다. 동아리 '글고운 캘리그래피' 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재무를 맡고 있다.

유명미 씨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후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활동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사고로 무릎을 다치면서 취업보다 배우는 쪽을 선택했다.

선긋기부터 단어 쓰기, 짧은 글쓰기로 단어가 향상되는 동안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서로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재능기부로 각종 전시회를 꾸렸다. 특히 2017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전시회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자신감을 주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 전시작품에



유명미(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어르신들과 작품활동을 하는 모습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 강의 요청이 들어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또 매년 을숙도문화회관과 평생학습성과공유회, 카페 포레스트3002, 굿월치과와 연계한 전시회도 가지고 있다. "캘리그래피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유명미 씨는 사하구 뿐 아니라 서구, 강서구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상 깊었던 강의로는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들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글귀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그녀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데 캘리그래피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겠다는 포부

최진 평생학습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 행복한 학습공간 동네방네학습관

# 동네 곳곳서 평생학습 열려

### 미뤄졌던 다양한 강좌 개강

사하구는 현재 지역 내 카페나 학원, 공방 등 공간을 활용해 배움을 나누는 동네방네 학습관 25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최근 평생학습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동네방네 학습관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동네방네학습관 강좌가 지난 11월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 구민들은 그동안 기다리던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 다행히 하반기 프로그램이 사하구 곳곳에서 열려 여러 강좌를 집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었다.

주간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이 많았고, 야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렸다. 특히 자격증 과정은 하단동 새동아직업전문학교에서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열린 컴퓨터

과정도 인기를 얻었다. 주부 이영희(46세·신평동) 씨는 "컴퓨터활용 2급 자격증과정을 듣고 있는데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자격증 강좌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간에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취미 강좌가 많았다. 괴정동 '커피소리'에서는 기타강사로 활동하는 사업주가 직접 기타수업을 진행했다. 장림동 '출판지는 작업실'에서는 두 번의 도자기 특강이 열렸는데 직장인들의 참여가 뜨거웠다.

수강생들은 작업실에서 직접 접시와 컵 등을 만들어 보고 꾸미기를 했다. 피곤할 법도 한데 하더라도 더 배우려는 눈빛이 수업에 열기를 더했다. 박금화(59세·장림동) 씨는 "퇴근길에 들러 평소 배우고 싶던 도자기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며 퇴근 후 동선이 길면 수업듣기가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도자기 빛는 것부터 그림을 그리고 유약 바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도자기 지식은 물론 직접 만든 작품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이소영(52세·구평동) 강사는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수업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짧게나마 동네 곳곳에서 평생학습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번 강좌가 지체되었던 구민들에게 도움과 활력소가 되었길 바란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2020년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성장공유회 개최

2020년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성장공유회가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부 포럼은 '학교와 마을의 협력으로 미래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유튜브(사하다행복교육지구)에서 생중계된다. 2부는 영역별 성과발표 및 토의로 오후 3시 40분부터 줌 화상회의를 통해 분야별 토론방이 운영되고,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051-220-4118

김수현 평생학습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 구청(區政)협력유공 표창

사하구는 한 해 동안 구정 업무에 적극 협력한 구민을 선정하여 유공 표창한다. 평생학습 발전 유공 분야는 진로상담 동아리 '아직꿈' 회장과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씨와 생태 동아리 '날도래강도래' 회장으로 생태고우니해설사와 동아리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는 김민정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